

노동·문화예술·생태가 함께 하는 생활공동체 《프라이부르크 파브릭》 -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하나의 모델-

사지원*

국문초록

본고는 노동의 세분화로 인하여 인간이 기계부품에 불과하게 되었고, 그 노동이 이루어지는 곳이 자신의 건강을 위협하는 오염원이 되었으며, 노동과 문화의 분리로 인하여 문화예술 활동을 위해서 별도로 시간을 내야 하는 모순들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이들을 통합하고자 형성된 《프라이부르크 파브릭》을 고찰했다. 《프라이부르크 파브릭》은 노동자들의 일터였던 파브릭 Fabrik을 생계유지를 위한 노동의 터전이자 주거지이며 생태계의 회복과 보존의 장소로 전환시킨 생활공동체이다.

하지만 이 공동체는 구성원들만의 자유로운 노동활동과 문화생활을 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지역의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주민들이 창작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문화예술프로그램들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공동체 자체만이 아니라 프라이부르크 시가 에너지 자립도시가 되는 데에 기여하고 있다. 요컨대 《프라이부르크 파브릭》은 자유로운 노동과 문화와 생태가 함께 하는 자립적인 공동체이지만 고립의 섬이 아니라 지역사회와 연대하며 지속가능한 사회가 될 수 있는 하나의 모델을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주제어: 독일, 프라이부르크 파브릭, 노동, 문화, 생태

* 건국대학교 문화콘텐츠학과 교수(Department of Culture Contents of Konkuk Univ.)
접수일(2020년 7월 16일), 게재 확정일(2020년 8월 4일)

I. 들어가는 말

1949년 단독정부를 수립한 독일연방공화국(이하 서독으로 약칭)의 아데나워 총리는 서방국가들과의 외교관계를 회복해가며 경제조치를 단행했다. 경제조치란 기독교민주당이 원래 계획했던 국가의 경제통제 프로그램인 아렌 프로그램 Ahlener Programm을 포기하고 사회적 시장경제를 도입한 것이었다. 이후 서독에는 생산제한이 사라지고, 사회주택을 지원하는 주택건축법의 효력이 발휘되었으며(1950.05), 건설업이 붐을 일으켰다. 그 결과 1951년에 국내총생산이 전쟁 전의 수준을 회복했다.¹⁾ 또한 1951년 프랑스의 제안에 의해 결성된 유럽석탄철강공동체는 서독 경제의 기폭제가 되었다. 이에 따라 1950년대에 서독은 이미 연평균 약 8%의 경제성장을 이뤘다.²⁾ 그러자 노조는 임금상승을 요구했고, 근로자들은 점점 짧은 노동시간과 높은 임금에 익숙해졌다. 하지만 짧은 노동시간에도 불구하고 생산량이 많다는 것은 노동이 세분화되고 단순해졌다는 의미이다. 동시에 세분화되어 단순화된 노동은 대체가 수월하기 때문에 그만큼 노동자의 가치가 하락했음을 뜻하기도 했다. 이처럼 노동자의 임금이 높아지자, 기업은 지출비용을 만회하기 위해서 상품가격을 올리고 기술을 자동화해나가면서 구조조정을 했다.

하지만 자동기술화 된 단순생산은 과다생산으로 이어져 상품들의 적체 현상을 불러일으켰다. 그 결과 1966년에는 국민총생산이 전년도에 비해 2.8%로 감소했고 1967년에는 0.2%로 떨어졌다.³⁾ 이에 따라 1967년 전후 처음으로 경제성장률이 제로가 되었고, 실업률은 1966년 0.7%에서 1967 2.2%로 증가했다.⁴⁾ 이처럼 경제위기의 징조가 보이자, 연방은행은 인플레이션 현상을 막기 위해서 이미 1965년 8월 13일에 이자율을 3.5%

1) Reid, J. H., *Heinrich Böll*, München 1990, p.64.

2) *ibid.*

3) Borowsky, Peter, *Das Ende der Ära Adenauer*, Bonn 1998, p.9.

4) *ibid.*

에서 4%로, 1966년 5월 27일에는 5%로 인상했다.⁵⁾ 이는 대출이자를 높이고 기업과 민간건설업의 투자를 위축시켰다. 결국 서독은 1966년 가을과 1967년 여름 사이에 연방공화국 수립 이후 최초의 경제위기를 맞았다.

그러나 사회적 시장경제를 선포한 에르하르트 총리는 경제위기에 대한 국가의 개입을 거부하며 오직 생산자들과 소비자 및 노동자들에게 적정선을 유지하면서 일해 달라고 도덕적 호소를 할 뿐이었다. 결국 1967년 11월 30일 에르하르트 총리가 사임하고 기민당과 기사당과 사민당의 대 연정이 이루어지고, 쿠르트 게오르크 키징어가 총리가 되었다. 다시 말하면 기민당 정부는 그동안 경제기적을 외치다가 경제하락을 겪으면서 중국에는 사민당과 대 연정을 이루었던 것이다. 이런 정치상황 하에서 원외 세력들과 학생들이 시위를 시작했고, 그 정점이 68운동이었다. 기성세대들의 자본주의적, 권위주의적, 관료주의적, 제국주의적 사유에 저항한 68운동은 정치개혁에는 성공하지 못했지만 시민들의 의식을 전환시키는 데에는 성공했다고 할 수 있다. 새로운 사회 또는 대안사회를 만들어보자며 훼손된 환경을 복구하고 보존하는 환경운동, 미국과 소련을 중심으로 한 무기경쟁을 반대하는 평화운동, 여성들의 인권과 권위를 위한 페미니즘 운동, 자본주의사회의 소비태도를 지양한 생활개혁운동, 제3세계와의 연대를 주장하고 글로벌 의식을 강화하는 공정무역운동, 엘리트 중심의 고급문화를 거부하고 ‘모두에 의한 모두를 위한 문화’를 주장하는 사회문화운동 등 다양한 세력들이 다양한 운동을 일으켰기 때문이다.

본고는 이런 다양한 운동 중에서 노동의 세분화로 인하여 인간이 기계 부품에 불과하게 되었고, 그 노동이 이루어지는 곳이 자신의 건강을 위협하는 오염원이 되었으며, 노동과 문화의 분리로 인하여 취미생활이나 문화예술 활동을 위해서 별도로 시간을 내야 하는 모순들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이들을 통합하고자 했던 대안운동에 초점을 맞추어 독일 프라이부르크의 《수공업·문화·생태를 위한 파브릭 FABRIK für Handwerk,

5) ibid.

Kultur und Ökologie e.V.》(이하 《프라이부르크 파브릭》으로 약칭)을 고찰하고자 한다. 《프라이부르크 파브릭》은 노동자들의 일터였던 ‘파브릭 Fabrik’을 생계유지를 위한 노동의 터전이자 거주지이며 생태계의 회복과 보존의 장소로 전환시킨 생활공동체이다. 이런 공동체는 지속가능한 사회⁶⁾를 위한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연구가 국내외에서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⁷⁾ 우리나라도 최근에 방치되어 있는 옛 공장들을 재활용하고자 하는 노력이 활발하기 때문에 이 연구가 의미가 있을 것이다.

II. 《프라이부르크 파브릭》탄생의 시대적 배경

1.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생태운동

서독은 1960대 중반에 전후 최초의 경제위기를 겪고 난 이후 1973년에 또 다시 경제위기를 맞았다. 이는 원유가 상승으로 인한 것이었다. 1973년 10월 6일 이스라엘과 아랍 지역 국가 간의 제 4차 중동전쟁(옴-키푸르 전쟁)이 발발하자, OPEC 회원국들은 이스라엘을 지지하는 국가들에게 제재를 가하기 위해서 석유 가격을 인상했다. 그 결과 유가가 1972년 배럴당 2.48달러에서 1974년 11.58달러로 올랐고, 국제유가는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⁸⁾

6) “지속가능한”이란 용어는 1987년 ‘환경과 개발을 위한 세계위원회 WCED’가 만든 「브룬트란트 보고서」에서 언급된 개념이다. 엄밀하게 말하면 이 보고서에서는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개념으로 선포되었다. 그 의미는 미래 세대의 삶의 기반이 되는 자연과 자연자원을 보장하면서도 현재의 발전을 꾀하는 것을 뜻한다(Hauff, Volker, *Unsere gemeinsame Zukunft, Der Brundtland-Bericht der Weltkommission für Umwelt und Entwicklung*, Greven 1987, p.51). 즉 지속가능한 사회란 지속가능한 발전이 이루어지는 사회를 말한다.

7) 《프라이부르크 파브릭》에 대한 연구는 현재 국내외에서 독일의 빙켈만의 연구뿐이다 (Winkelmann, Arne, *Kulturfabriken, Zeichenwandel der Fabrik in der freien Kulturarbeit*, Berlin 2006).

원유가격 상승으로 인하여 서독에서도 주요 원자재 가격이 급상승했으며, 높은 에너지 비용은 구매력을 감소시켰다. 기록적인 인플레이션이 극도로 높은 임금체결을 초래하자, 서독정부는 에너지절약과 다른 에너지로의 전환을 시도했다. 이에 따라 서독에는 1970년대에 40기의 원자력발전소 건립이 계획되었다. 그러나 이미 68운동 이후 새로운 사회를 만들어보자며 그때그때의 이슈에 따라 자발적으로 다양한 운동을 펼쳤던 시민들은 원자력발전소 건설 반대운동을 펼쳤다. 특히 서독에서 원자력발전소반대운동은 포도농부들에 의해서 일어났다. 1969년 브라이자흐에 건설계획을 세웠다가 주민들의 시위로 무산되었던 원자력발전소 건설이 1973년 7월 라인 상류지역 빌로 재 확정되자, 이 지역의 포도농장 주민들이 주축이 되어 자율적으로 저항운동을 펼쳤다.⁹⁾ 이들은 핵발전소 건설로 인하여 포도의 질이 떨어짐으로써 생업에 지장이 올 것을 우려하여 시위를 시작했고, 이 시위는 독일에서 일어난 최초의 대규모 시민운동이었다.

다른 한편 생태계의 훼손에 대한 우려는 이미 1960년대부터 나오기 시작했다. 당시에 세계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킨 첫 사건은 1962년 출간된 미국의 해양생물학자 레이첼 카슨의 『침묵의 봄』이었다. 『침묵의 봄』은 나무에 있는 해충을 없애고자 뿌린 살충제 DDT가 결국은 생태계의 먹이사슬을 따라 사람들의 몸에 축적되어 면역을 약화시키고 암과 유전자변이를 일으킬 수 있음을 상세히 서술하고 있다. 이 저술의 영향으로 과학기술에 저항하는 생태운동단체들이 생기고 생태 관련 학문들이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또한 1968년에는 이탈리아 로마에서 세계를 대표하는 지식인들이 모여서 로마클럽을 결성했다. 로마클럽은 과학자 11명을 MIT대학교에 보내 지구의 상태를 실사하게 했고 그 결과를 1971년 「성장의 한계」라는 제목으로 발표했다.¹⁰⁾ 보고서는 인구의 증가, 지속적인 산업화, 오염, 식품생

8) Borowsky, Peter, *Deutschland 1963-69*, Oldenbourg 1983, p.53.

9) 사지원, 『생태정신의 녹색사회: 독일』 이담출판사, 2011, 57-58쪽.

산, 천연자원의 고갈이라는 다섯 주제로 이루어져 있고 그 핵심내용은 다음과 같다. 인류가 지금과 같은 속도로 성장해간다면, 지구는 100년 내에 그 한계를 드러낼 것이다. 때문에 의식과 생활태도를 전환하고 자원사용을 최소화하며 인구증가를 통제해야만 지구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다.

요컨대 에너지 자원의 문제를 보여준 원유사태와 심각한 생태계 파괴를 제시한 로마클럽의 보고서는 70년대의 경제성장에 제동을 걸었다. 특히 ‘생태위기가 곧 지구의 위기’라는 사유가 대두되면서 인간의 욕망과 소비태도와 생활습관에 대한 각성과 성찰을 요구하는 운동이 일어났고 트렌드 전환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졌다.¹¹⁾ 이때 논의된 내용을 요약하면, 트렌드 전환은 인식의 변화가 있어야 가능하고 인식의 변화를 위해서는 인간이 자신의 행동과 그 행동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사이의 관계를 깨달아야 하며 깨달은 바를 실천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에 따라 인식을 전환하고 실천하는 환경운동 또는 생태운동이 일어났고 환경단체의 회원들이 급격히 증가했으며 1866년에 헤켈에 의해 고안된 생태학이 부활했다.¹²⁾ 즉 생태학이 사회운동으로서의 환경운동과 연계되었던 것이다.

이 시기에 기업들은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서 자동기술화를 더욱 가속화했고 더 많은 생산을 촉진했다. 반면에 이 기술들은 근로자들의 실업을 초래하고 그들의 노동을 더욱 세분화하고 부품화 했다.¹³⁾ 그럼으로써 근로자 개인이 전체에 미치는 역할이 점점 더 작아졌고 자신의 노동으로부터 소외되었다. 때문에 개인이 자신의 노동으로부터 느끼는 기쁨이나 만족감은 사라져갔고, 개인은 자신의 기쁨을 위해서 별도로 시간을 내야 했다. 이런 불만이 시민들을 자신의 직업생활과 여가시간을 분리하지 않

10) 보고서는 1972년 같은 제목의 책으로 출판되었다.

11) Hermand, Jost, *Die Kultur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1965-85*, München 1988, p.471.

12) 사지원, 앞의 책, 51-52쪽.

13) Darendorf, Ralf, *Wenn der Arbeitsgesellschaft die Arbeit ausgeht*, Frankfurt a. Main/New York 1982, p.29.

고 모든 생활영역이 통합적으로 연계되는 모델을 만들어보자는 공통의 목표를 갖게 했다. 그 결과 거주와 노동과 문화예술이 함께 하는 생활공동체가 형성되었다. 본고에서 고찰할 《프라이부르크 파브릭》도 그 중 하나이다. 요컨대 헤켈이 말하는 생태라는 개념이 모든 생명체가 서로 연계되어 있고 순환하고 지속한다는 통합적인 개념이듯이,¹⁴⁾ 거주지에서 노동과 문화 활동을 하고 자연과 공존하는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어보자는 사유에서 《프라이부르크 파브릭》이 형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

2. ‘파브릭’의 재활용

신 사회운동을 펼친 다양한 세력들은 기존의 문화개념에도 의문을 품었다. 이들은 그동안 당연하게 통용되어 온 문화예술들이 사실은 일정 계층만 누리는 고급문화였다고¹⁵⁾ 비판하며 문화를 새로운 사회의 중심에 두고자 했다. 즉 문화예술이 사회의 발전방향과 전망을 제시해야 한다는 것이었다.¹⁶⁾ 특히 기존의 고급문화에서 자리를 잡지 못한 젊은 예술가들이 이 사회문화운동에 동참했다. 이들은 무엇보다 일상미학 내지는 일상을 미학화하기 위해서 함께 생활하며 창의력을 발휘하고 이를 주변으로 확산시키고자 했다. 즉 이들은 기존의 오락적이고 소비 지향적인 문화예술개념을 거부하고 누구나 문화 활동에 참여하여 배우고 실습하며 창의력을 발휘하는 대안문화의 모델을 고안해내고자 했다. 그리고 이 실

14) Haeckel, Ernst, *Der Monismus als Band zwischen Religion und Wissenschaft*, Bonn 1902, p.295.

15) 마르쿠제는 이 고급문화가 사회질서를 유지하는 긍정적인 문화로 수용되어 왔다고 비판했다(Marcuse, Herbert, *Kultur und Gesellschaft I*, Frankfurt am Main 1968, p.63.

16) 당시 이런 논리를 뒷받침한 문화 이론가는 헤르만 글라저와 힐마 호프만이다. 이들의 목표는 “모두에 의한 모두를 위한 문화 Kultur von allen für alle”, 즉 문화민주주의의 실현이었다(Glaser, Hermann, *Die Wiedergewinnung des Ästhetischen, Perspektiven und Modelle einer neuen Soziokultur*, München 1974/Hoffmann, Hilmar, *Kultur für alle, Perspektiven und Modelle*, Frankfurt a. Main 1979).

천의 장소로 오래 방치된 산업체 건물이나 빈 건물들을 선택했다.¹⁷⁾ 특히 이들은 노동자구역에 있는 옛 산업체 건물들을 선호했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파브릭’은 노동자들이 아침저녁으로 드나들며 일했던 곳으로 그들에게 익숙한 곳이기에 문화 활동 참여에 대한 망설임이 덜 할 것이기 때문이다. 둘째, ‘파브릭’이라는 곳이 단순하고 세분화된 노동을 기계적으로 했던 역할에서 벗어나서 노동과 삶이 함께 하는 생활 양식을 실천할 수 있는 곳임을 입증하기 위해서였다. 셋째, 자본가들의 건물에 대한 투기와 재건축을 막고 노동자구역에 문화와 교육 및 건강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생활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모두에 의한 모두를 위한 문화”라는 문화민주주의를 실현하고자 했기 때문이다. 넷째, 낡고 방치되어 있는 건물을 재활용함으로써 주변을 정비하고 지역의 역사적 정체성을 보존하고자 했기 때문이다. 또 그럼으로써 젠트리피케이션 현상¹⁸⁾을 막고 노동자들이 주로 거주하는 파브릭 주변의 주민들에게 자부심을 심어줄 수 있기 때문이다. 다섯째, 폐수와 오염의 원천으로 여기는 공장이 생태적으로 유지가 가능함을 보여주고자 했기 때문이다. 이런 여러 이유에서 사회문화운동가들은 재개발과 재건축으로 경제와 건설업을 부흥시키기보다는 ‘파브릭’의 재활용과 재생을 택했다.

또한 이런 시민들의 바람과 맞물려 “더 많은 민주주의에 도전 Mehr Demokratie wagen”이라는 슬로건으로 정권을 교체한 사민당은 문화정책에 ‘사회문화 Soziokultur’라는 명칭을 부여하여 사회문화정책을 펼쳤다. 이에 따라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던 산업체 건물들을 재활용하고자 했던 젊은 문화예술가들과 이에 동조한 시민발기자들의 발상이 현실화될 수 있었다.

17) 1970년대에는 방치된 건물들에 대한 무단 점유현상이 일어났는데, 이의 시작은 베를린의 《우파 파브릭》이었다(사지원, 「생태공동체 탄생에 의한 지역재생과 지역사회의 활성화. - 독일 베를린 《우파 파브릭 생태공동체》를 중심으로」, 『독일어문학』, 한국독일어문학회, 87집, 2019, 271쪽.

18) 낙후된 구도심 지역이 활성화되어 중산층 이상이 유입됨으로써 저소득층 원주민을 대체하는 현상.

정리하면, 사회문화센터운동은 68운동이 이루어낸 시민의식의 변화와 정권교체가 맞물려서 탄력을 받게 되었고, 그로 인해 다양한 방식의 사회문화센터가 전국에 설립될 수 있었다. 현재 독일에는 566개의 사회문화센터가 전국에 퍼져있으며 어린이와 노인을 포함한 모든 시민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고 있다.¹⁹⁾ 하지만 사회문화센터의 원칙과 방법이 다양성이기 때문에 똑같은 조직과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센터는 한 곳도 없다.²⁰⁾ 앞서 언급했듯이 《프라이부르크 파브릭》도 이 시기에 일어났던 대안운동으로서의 생태운동과 사회문화센터운동에 힘입어 탄생했지만, ‘모두에 의한 모두를 위한’ 문화민주주의를 실천하기 위해 설립된 사회문화센터와 달리, 노동과 문화와 거주를 함께 하는 생활공동체의 건설에 목표를 두었다. 다시 말하면 이 공동체의 우선적인 목표는 지역주민들이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을 실천하고 향유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기능보다는 세분화되고 단순화된 노동개념을 바꾸고자 했고 이 노동을 문화라는 개념과 동일시하며 이를 직접 실천하는 모델을 통해 지역사회에 기여하고자 했다. 그러면 《프라이부르크 파브릭》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으로 조명해보도록 하자.

III. 《프라이부르크 파브릭》의 발전과정과 현황

1. 주거지이자 일터로서의 《프라이부르크 파브릭》

《프라이부르크 파브릭》은 신발을 만들던 노동자들이 연대하여 헤르데른 구역의 합스부르크 거리에 있는 방사공장을 매입하면서 탄생했다

19) Bundesvereinigung Soziokultureller Zentren e. V., *Was braucht's? Soziokulturellen Zentren in Zahlen*, Berlin 2019, p.5.

20) Schneider, Wolfgang, *Was ist und zu welchem Zweck betreibt man Soziokultur?* 2008. (<https://soziokultur-sachsen.de/phocadownload/userupload/was%20ist%20und%20zu%20welchem%20zweck%20betreibt%20man%20soziokultur%20-%20wolfgang%20schneider.pdf>) (검색일 2020년 3월 20일).

(1978). 건물은 원래 가구공장이었으나 방사공장으로 변경 사용되었다가 1975년에 문을 닫은 곳이었다. 1900년에 지어진 3층 건물은 단순히 벽돌로 되어 있고 기역자로 옆에 붙어있는 2층 건물도 단순한 목조건물이다.²¹⁾ 즉 이 파브릭은 다른 파브릭들이 사회문화센터가 될 때에 고려되었던 건물의 건축사적 의미를 고려한 것은 아니었다. 또한 공장건물이 노동자들의 거주지에 위치하고 있는 것도 아니어서 도시 내에서의 구역의 역할 및 지리적 위치 등이 고려되어 선택된 것도 아니었다. 단지 이들은 혼자서 완성품을 만들어냈던 예전과 달리 오직 한 가지 일만을 하는 기계적인 노동에 대해 염증을 느끼고 예전과 같은 노동형태로 돌아가자는 데 의견일치를 보았던 것이다.²²⁾ 다시 말하면 단순히 밥벌이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을 느낄 수 있는 노동을 하고 그 노동이 바로 취미활동이 될 수 있도록 하자는 데에 합의했던 것이다. 물론 이처럼 개개인이 마음속에 품고 있었던 자본주의의 산업사회에 대한 불만을 표출할 수 있었던 계기는 70년대 독일 전체에서 일어나고 있었던 신 사회운동의 덕분이였다. 특히 이들은 사회학이 강한 프라이부르크 대학교의 학생들의 영향을 받았다.²³⁾ 요컨대 당시의 사회분위에 힘입어 신발공장에서 일을 하던 근로자들이 노동과 거주와 문화와 자연과 함께 하는 생활공동체를 만들고자 건물을 매입했고 바로 손질하고 증축하여 입주했던 것이다.

이들은 사회학자들과 문화예술가들의 도움으로 1980년에 《수공업·문화·생태를 위한 파브릭 협회》를 설립했다.²⁴⁾ 협회의 목적은 건물매입 때 의도했던 바와 같이 자율적이고 독립적으로 운영하면서 모든 구성원들이 똑같은 위치에서 결정을 하고 똑같이 책임을 지며 자유를 누리고 인

21) FABRIK-Video, <https://www.fabrik-freiburg.de> (검색일 2020년 3월 27일).

22) FABIK-Geschichte, <https://www.fabrik-freiburg.de/ueber-uns/geschichte> (검색일 2020년 3월 27일).

23) Winkelmann, Arne, *ibid.* p.94.

24) 이는 베를린 《우파 파브릭》의 전신인《문화·스포츠·수공업 제작소》를 모델로 했음을 예상할 수 있다(사지원, 앞의 글, p.270).

간과 자연이 평화롭게 공존하는 생활실습장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었다.²⁵⁾ 이들은 파브릭의 목적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자발적이고 수공업적으로 공동 작업을 하여 생산과정을 훤히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여겼다. 그래야 마르크스의 소외이론²⁶⁾에서 언급되었을 뿐만 아니라 자신들이 실제로 경험했던 바와 같은 소외, 즉 노동자들이 자신이 만든 상품으로부터의 소외가 일어나지 않고 원자재의 낭비가 없으며 보다 책임감 있는 생산을 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또 그럼으로써 노동자는 자신이 만들어 낸 산물을 보고 성취감을 느끼고 노동이 단순한 돈벌이가 아니라 자아실현의 수단이 될 수 있음을 깨닫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자신의 노동활동이 일종의 취미활동이자 문화 활동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원자재의 선택부터 완성품까지 혼자서 직접 하기 때문에 원자재를 선택할 때에도 가능한 자원을 아끼려고 노력할 것이라는 생각이었다. 이런 논리에서 프라이부르크 파브릭의 구성원들은 노동과 거주와 문화와 생태가 통합된 공동체를 만들고자 하였던 것이다.

따라서 공동체 명칭에 의도적으로 수공업이라는 단어를 넣어 《수공업·문화·생태를 위한 파브릭》이라고 명명했다. 이로써 구성원들은 공동체의 명칭에 상품 생산자가 상품전체를 스스로 책임지기 때문에 보다 완벽한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서 시간과 노력과 정성을 투자하고 있음을 드러냈다. 그럼으로써 소비자들이 공동체에서 생산되는 상품에 대한 신뢰를 갖게 되고 생산자와 소비자가 지속적으로 관계를 맺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구성원들은 바로 이런 선순환 관계를 인지하고 예상했던 것이다.

25) Behrendt, Arne, *Umnutzungs(t)räume. Soziokultur, Arbeit und Wohnen auf alten Gewerbeflächen - 29 Beispiele*, Hannover 1994, p.46.

26) 마르크스에 의하면 1) 노동자의 노동 자체가 단순한 상품이 되면서, 노동자는 자신의 노동력 외에는 아무 것도 소유하지 못하기 때문에 노동활동으로부터 소외되고, 2) 노동자는 자신이 만들어 낸 상품의 창조자이지만 자신이 소유자가 되지 못함으로써 자신의 생산품으로부터 소외되고, 3) 노동자는 임금노동자로서 자아실현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자기 자신으로부터도 소외되며, 4) 인간으로서 자아실현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인간은 서로서로 소외된다고 주장했다(Isarel, Joachim, *Der Begriff der Entfremdung*, Reinbek bei Hamburg 1972, pp.13-15/pp.45-47).

또한 공동체의 구성원들은 공장이란 일반적으로 폐수와 폐기가스와 생산물의 잔재들이 나오는 오염원이기에 이를 뒤집는 언어로 “생태를 위한 파브릭”이라는 단어를 선택하여 생태사회가 가능함을 입증하고자 했다. 요컨대 《수공업·문화·생태를 위한 파브릭》은 산업시대의 대량생산과 대량소비를 거부하고 인간적인 노동을 하고 오직 소비를 위해 돈벌이를 하게 하는 자본주의의 경제관을 거부하고 문화생활을 하고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지속가능성을 고려하는 생활공동체를 설립하였다고 할 수 있다. 엄밀하게 말하면 이 공동체는 노동과 문화와 생태를 위한 하나의 실험공동체라고 할 수 있다.²⁷⁾

공동체의 이런 설립 목적에 따라 건물의 증축이나 새 건축은 반제품을 사다가 조립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직접 수공업 방식으로 건축했다. 예컨대 모든 구성원들이 목공기술과 건축기술을 활용하여 본채 앞의 문화센터 〈포어테어하우스 VORDERHAUS〉와 게스트하우스 및 뒤채의 건축과 본채의 증축 등을 직접 했다.²⁸⁾ 모든 구성원들이 힘을 합해 직접 건축함으로써 자신들의 노동에 대한 기쁨을 느끼고 완성된 건물에 대해 성취감을 만끽했던 것이다. 또 그럼으로써 건축에 필요한 재료들을 직접 선택하여 필요한 만큼만 소비함으로써 재료들을 절약했다.

이런 생활공동체는 노동 이후에는 함께 식사를 하고 휴식을 취하고 취침함으로써 출퇴근에 필요한 시간과 교통비와 에너지 낭비를 막는다. 현재도 이곳에서는 여전히 통합적인 노동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150여명이 목공일, 출판 및 인쇄업, 날염, 도자기 작업장, 자전거 정비소 등 25개 이상의 작업장에서 일을 하고 있다.²⁹⁾

27) Behrendt, Arne, *ibid*,

28) FABRIK-Geschichte. <https://www.fabrik-freiburg.de/ueber-uns/geschichte> (검색일 2020년 3월 27일).

29) *fabrik-freiburg*, <https://www.fabrik-freiburg.de> (검색일 2020년 3월 27일)

2. 노동과 문화예술의 통합체로서의 《프라이부르크 파브릭》

독일에서 문화민주주의라는 용어를 최초로 사용했던 문화입안자 힐마 호프만이 노동을 문화에 대한 개념과 동일시했듯이, 《프라이부르크의 파브릭》은 삶의 전체과정을 문화로 여겼다. 따라서 그들이 하는 노동활동 역시 문화로 간주했다.

1979년 출간한 『모두를 위한 문화. 관점과 모델들 Kultur für alle. Perspektive und Modelle』에서 신분, 돈, 가정형편, 신체적 장애 등으로 인해 문화 활동이 방해받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던 힐마 호프만은 1985년에 출간한 『내일을 위한 문화. 미래문제의 해결을 위한 기여 Kultur für morgen. Beitrag zur Lösung der Zukunftsprobleme』라는 저술에서는 이 개념을 노동과 연계했다. 특히 그는 “노동 대신에 문화 Kultur statt Arbeit”라는 제목의 장에서 문화를 노동과 같은 개념으로 제시했다. 그는 실업자, 일자리를 얻지 못한 젊은이들, 연금생활자나 조기퇴직자들은 노동의 세계로 전혀 들어가지 못하는데, 이들은 문화적인 활동을 통해 의미 있는 생활을 유지하고 사회에도 참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³⁰⁾ 다시 말하면 문화센터에서 자신들이 좋아하는 활동을 하면서 그 활동을 통해 판매 가능한 상품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자유롭고 창조적인 활동이 산업체에 예속되어 있는 노동자들을 돈벌이 노동에서 해방시키고 수입창출까지 할 수 있다는 것이 호프만의 주장이다. 즉 수직적이고 억압적인 노동세계에 들어가지 않고 자유로운 문화 활동을 통해 고용창출까지 이루어낼 수 있다는 것이다. 동시에 이로써 오직 생계유지를 위한 강제성을 띤 노동과 자유로운 여가시간에 하는 활동의 경계가 무너지고 노동자와 비 노동자의 구분도 사라진다는 것이다. 때문에 그는 돈 벌이가 아닌 문화 활동 역시 노동이라고 설명하며 이런 노동이 오히려 영감과 동기를 부여하고 지속적인 정신활동을 촉진하기 때문

30) Hoffmann, Hilmar, *Kultur für morgen. Beitrag zur Lösung der Zukunftsprobleme*. Frankfurt a. Main 1986, pp.27-28.

에 창조적인 노동활동이자 문화 활동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³¹⁾ 따라서 그는 문화란 긴장완화나 취미 이상의 기능과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요컨대 힐마 호프만의 견해에 따르면 자유 시간에 자신이 좋아하는 활동을 통해 창의력을 발휘하는 활동 역시 노동이며, 이때의 노동은 문화 활동의 다른 말이라는 의미이다. 따라서 그는 자신에게 만족감과 기쁨과 수입까지 가져오는 창조적인 문화 활동을 비 노동자 또는 비 경제활동으로 여기는 것은 옳지 않으며 노동과 문화 활동의 구분은 제거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언급했듯이, 《프라이부르크 파브릭》에서는 힐마 호프만이 주장한 것처럼, 그들이 하는 노동 활동을 문화 활동으로 여겼기 때문에 자신들과 지역주민들을 위한 문화센터 〈포어테어하우스〉를 건축하는 활동을 문화 활동으로 간주했다. 때문에 공동체는 문화센터의 건축 때에 지역주민들에게 노동활동이자 문화 활동의 일환으로 일자리를 제공했다.

사실 공동체의 설립시기부터 구성원들은 인간을 부품화 시키는 자본주의 사회를 비판하기 보다는 삶의 전체를 조망할 수 있도록 작업장과 거주지와 문화생활이 통합되어 있는 삶의 모델을 보여주하고자 했고 이런 생활방식으로 지역사회에 기여하고자 했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문화예술 활동에 동참할 수 있도록 별도의 건물 〈포어테어하우스〉를 건축했던 것이다.³²⁾ 이후 〈포어테어하우스〉에서는 다양한 문화예술프로그램이 제공되고 있다.³³⁾ 예컨대 카바레 작가 플로리안 슈뢰더와 마티아스 도이치만과 마르티나 슈바르츠만이 이곳에서 정기적으로 공연을 하고 있다. 또 이곳에서는 지역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토론회 등이 개최되고 있다.

특히 공동체는 밀레니엄 시대에 접어들면서부터는 장애인들에게 도움

31) *ibid.*, p.28.

32) FABRIK-Geschichte. <https://www.fabrik-freiburg.de/ueber-uns/geschichte> (검색일 2020년 3월 27일)

33) 《프라이부르크 파브릭》의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에 대해서는 주로 〈포어테어하우스〉 웹사이트의 자료에 의지했다. <https://www.vorderhaus.de> (검색일 2020년 4월 2일)

을 주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으며 그 첫 행사로 2000년 제 1회 “프라이부르크-경계 없는-페스티벌”을 개최하여 장애인들과의 통합을 촉진하고 “빛장 없는 파브릭”이라는 슬로건의 프로젝트를 시작했다.³⁴⁾ 이후 장애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으며, 2008년에는 프라이부르크 시의 공식 장애인자문기구로 선정되었다. 2010년에는 바덴 뷔르템베르크 주의 재정지원에 의해 《포어테어하우스 진흥협회》가 설립되었으며 협회의 설립취지에 따라 프라이부르크 시와 바덴뷔르템베르크 주가 파브릭의 문화프로그램의 운영을 위해 25%의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³⁵⁾ 2017년에는 《프라이부르크 경제 관광 박람회 회사 FWTM》로부터 기업인상을 수상했고 2018년에는 《프라이부르크 파브릭》 탄생 40주년을 맞아서 지역주민들과 함께 페스티벌을 개최했다.

〈포어테어하우스〉에서 일상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프로그램은 평생교육, 상담교육, 환경교육, 외국인을 위한 독일어교육, 외국어교육 등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이 실행되고 있으며 노동 없이 온전히 쉴 수 있는 주말에는 어린이들이 부모와 함께 관람할 수 있도록 인형극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

정리하면 《프라이부르크 파브릭》의 전면에 있는 문화센터 〈포어테어하우스〉는 노동활동과 문화예술 활동의 통합체로서 장애인들의 다양한 작업 활동에 의해 예술작품을 탄생시키는 곳이며 지역주민들의 다양한 문화예술 및 교육활동이 실행되는 곳이다. 또 실업자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망명여성들과 어린이들을 돌보고 어린이를 위한 문화예술 활동이 이루어지는 곳이기도 하다.³⁶⁾ 요컨대 《프라이부르크 파브릭》은 대안문화가 이루어지는 곳이라고 할 수 있다.

34) FABRIK-Geschichte, <https://www.fabrik-freiburg.de/ueber-uns/geschichte> (검색일 2020년 3월 27일)

35) FABRIK-Geschichte, <https://www.fabrik-freiburg.de/ueber-uns/geschichte> (검색일 2020년 3월 27일)

36) VORDERHAUS, <https://www.vorderhaus.de> (검색일 2020년 4월 2일)

3. 지속가능한 사회를 추구하는 《프라이부르크 파브릭》

앞서 언급했듯이, 70년대에 일어난 신 사회운동이 환경운동 내지는 생태운동을 불러일으켰고 그 영향 하에서 《프라이부르크 파브릭》이 형성되었기 때문에 이 공동체의 구성원들은 초기부터 생태와 지속가능한 경제에 대한 의식을 가졌었다.³⁷⁾

공동체가 지속가능한 지구촌이 되는 데에 기여하기 위해서 가장 관심을 두었던 부분은 탄소배출을 줄이고 신재생에너지 사용의 증대로 인한 에너지 자립 공동체를 추구하는 것이었다. 《프라이부르크 파브릭》은 1980년대뿐만 아니라 2008년 세계경제위기 시에 메르켈 정부가 원자력 발전소의 연장을 논의 할 때에도 전국적으로 일어났던 반핵운동에 동참했다. 즉 원자력에너지를 거부했다. 따라서 설립 시부터 대체에너지를 개발하고자 노력했으며 이미 1987년에 프라이부르크에서는 최초로 공동체 자체 난방시설을 갖추었고 1996년 여름에는 자가발전에 의해 전기를 사용하는 야간 야외무대를 설치했다. 2001년에는 뒤체의 지붕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했고 2014년부터는 본체의 지붕에도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여 전력을 얻고 있다. 이 태양광 패널로부터 공동체는 매년 140,000kWh의 전력을 생산하고 있다. 이는 파브릭이 필요로 하는 양의 절반에 해당한다. 이로써 《프라이부르크 파브릭》은 매년 150 톤의 이산화탄소 배출을 감축하고 있다. 나머지의 전력은 《프라이부르크 파브릭》의 주요 스폰서인 쇠나우 Schönau에 있는 《에코전력발전소》로부터 신재생에너지를 매입하여 사용하고 있다. 2010년에는 《프라이부르크 파브릭》전면에 프라부르크 시 최초의 무료 에코전력저장소가 설립되었고, 2011년에는 쇠나우의 《에코전력발전소》와 프라이부르크 《국민은행》과 함께 지역사회의 프로젝트인 《에너지 연대 SolidarEnergie》를 창립하여 프라이부르크 시를 에너지 자립 도시로 만드는 데에 기여하고 있다. 동

37) FABRIK-Ökologie, <https://www.fabrik-freiburg.de/ueber-uns/oekologie> (검색일 2020년 4월 3일). 이 공동체의 신재생에너지에 대해서는 주로 두 웹사이트 (FABRIK-Ökologie와 FABRIK-Geschichte)의 자료에 의지했다.

시에 공동체는 일찍이 빗물저장소를 설치하여 빗물을 화장실과 정원 및 청소용으로 사용하고 있다.

또한 본채의 리모델링과 〈포어데어하우스〉와 뒤채의 신축 때에는 에너지 절약을 위해서 목재와 단열재 유리들을 사용했으며 신 건축물들을 짓는 데에 본채를 중심으로 앞뒤에 있는 유휴지를 활용했다. 그럼으로써 공동체는 보존하고 있는 유휴지를 최대한 활용하고 주변 환경을 있는 그대로 살리고 있다. 또한 직접 건축을 함으로써 자재들을 절약하고 쓰레기 배출과 소음 등을 줄였다. 나아가 건축 시에는 지역주민들 중에서 실업자와 외국인 노동자들을 고용했다.³⁸⁾ 그럼으로써 지역사회의 실업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기여했다.

이런 다양한 활동을 통하여 《프라이부르크 파브릭》은 일상에서 생태계를 보존하고 지역경제에 기여하고 소외되어 있는 사회적 약자들에게 도움을 주며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향하고 있다.

4. 《프라이부르크 파브릭》의 생태적·문화적·경제적 기여

《프라이부르크 파브릭》의 설립과 발전과정에서 드러났듯이, 《프라이부르크 파브릭》은 지역사회에 생태적·문화적·경제적으로 크게 기여하고 있다. 그 기여를 정리하면 이러하다.

첫째, 수년 동안 방치된 공장건물을 재생하여 거주할 수 있는 공동체로 만들면서 또 이후 공동체를 유지하면서 일자리를 창출했다. 둘째, 방치되었던 공장건물을 정비함으로써 지역의 역사적 정체성을 보존하고 지역이미지를 개선했다. 셋째, 공장건물에 대한 자본가들의 투기와 재건축을 예방함으로써 그 지역의 젠트피케이션 현상을 막았다. 넷째, 지역주민들이 문화예술을 즐길 뿐만 아니라 직접 창의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제공했다. 그럼으로써 오락적이고 소비지

38) Winkelmann, Arne, *ibid.* p.96.

향적인 문화예술개념에서 ‘모두에 의한 모두를 위한 문화’라는 문화민주주의를 실현했다. 다섯째, 다양한 지역사회문제에 대해 토론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짐으로써 주민들을 지역사회발전에 동참시켰고 이를 계기로 하여 지역주민들이 단합할 수 있도록 했다. 다섯째, 열 병합 발전소와 태양광 패널 설치 및 LED 전구 사용 등으로 에너지 절약과 효율화 및 다양화를 추구함으로써 에너지 자립공동체의 모델이 되었다. 또 빔볼저장소를 설치하여 물을 절약하는 방법을 제시했다. 이로써 《프라이부르크 파브릭》은 생태적 기술들의 경제적 가능성도 보여주었다. 여섯째, 자연자원을 최대한 아끼고 유휴지를 활용하고 생태적 기술의 사용으로 ‘파브릭’이 오염원이라는 이미지를 개선하는 데 기여했다.

이처럼 《프라이부르크 파브릭》은 지역사회에 생태적·문화적·경제적으로 기여하며 《프라이부르크 파브릭》과 같은 공동체가 지속가능한 사회로 가는 하나의 모델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5. 《프라이부르크 파브릭》의 한계와 과제

위에서 언급한 여러 긍정적인 효과에도 불구하고 《프라이부르크 파브릭》은 한계를 가지고 있으며, 이 한계는 파브릭이 해결해야 할 과제가 되기도 한다. 이를 조명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프라이부르크 파브릭》은 프라이부르크 시의 공식 장애인 자문기구로 선정될 정도로 장애인 돌보기를 위한 네트워크가 잘 구축되어 있다. 하지만 지역의 가난한 어린이와 노약자 및 미혼모와 같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 네트워크는 제대로 구축되어 있지 않다. 때문에 현재 그 규모를 파악조차 할 수 없는 실정이다. 70년대에 일어났던 대안운동 중의 한 갈래인 사회문화운동의 영향을 받아서 탄생한 사회문화센터들은 일반적으로 미혼모나 한 부모 가정의 어린이들의 돌보기와 독거노인 및 장애인을 위한 네트워크를 탄탄하게 구축하고 있다. 예컨대 베를린의 《우파 파브릭》은 인근지역들에 《이웃센터》를 설립하여 지역의 가정들에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참여를 촉진할 뿐만 아니라 어린이 돌보미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어머니들이 직업과 가정을 원활히 병행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³⁹⁾ 또 한 부모 가정과 미혼모의 아이들을 돌보는 일과 출산을 돕고 지역의 응급환자나 지병이 있는 환자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다. 이처럼 다른 사회문화센터와 비교해보면, 《프라이부르크 파브릭》은 사회적 서비스를 제대로 갖추고 있지 않은 편이다. 때문에 이에 대한 강화가 필요하다. 둘째, 문화센터 〈포어데어하우스〉의 어린이 프로그램을 보완해야 한다. 앞서 언급했듯이, 《프라이부르크 파브릭》은 생활공동체로서 순전히 문화민주주의를 실천하기 위해서 설립된 문화센터와는 성격이 다소 다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문화센터 《함부르크 파브릭》이 미성년자에게 무료로 문화 프로그램과 공간과 음식을 제공한 것에 비해서,⁴⁰⁾ 이곳 〈포어데어하우스〉의 어린이 프로그램은 주말에만 운영되고 있으며, 관람객은 입장료(5-10 유로)를 지불해야 한다. 따라서 《프라이부르크 파브릭》은 어린이 프로그램을 보다 다양화하고 지원을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 셋째, 상시적으로 운영되는 문화예술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하우스 문화예술인단’을 육성해야 한다. 《프라이부르크 파브릭》은 자체 문화예술인단을 보유하고 있지 않기에 문화예술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매년 문화예술인들을 초청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들의 출연료에 상당한 액수가 지출될 것이다. 특히 ‘하우스 문화예술인단’을 창립하기 위해서는 장시간이 요구되기에 쉽지 않은 일이지만 미래지향적이고 지속가능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필요한 작업이다. 넷째, 위에서 언급한 프로그램들을 저렴한 입장료로 운영하고 자체 문화예술인단을 육성하기 위해서 재원확보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39) 사지원, 앞의 글, 280-281쪽.

40) 《함부르크 파브릭》은 함부르크의 노동자 구역이었던 알토나 지역에 설립된 독일 최초의 사회문화센터이다. 이곳은 특히 빈 집에 홀로 있거나 거리를 방황하는 아이들이 또래 친구들과 만나서 공부와 취미생활을 할 수 있도록 공간과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Hamburg-FABRIK, <https://fabrik.de> (검색일 2020년 2월 25일)

프라이부르크 시와 주정부에서 25%의 지원을 받고 있음에도 다른 사회문화센터에 비해서 입장료가 더 높게 책정되었다는 것은 재정이 충분치 않기 때문일 것이다.⁴¹⁾ 따라서 공동체는 재원 확보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예컨대 공동체가 쇠나우 《에코 전력발전소》로부터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지원을 받고 있듯이, 문화예술관련 기관들과 MOU를 맺고 서로 연대하여 문화예술인 육성 프로그램을 가동할 수 있을 것이다. 또 문화예술인들의 재능기부를 받을 수도 있을 것이다.

《프라이부르크 파브릭》이 대안운동에 의해서 탄생한 사회문화센터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실행하기 위해서는 이상의 사항들을 해결해야 할 것이다.

IV. 나가는 말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프라이부르크 파브릭》은 70년대에 새로운 사회를 만들어보자고 일어난 대안운동에 의해서 탄생하게 되었다. 즉 ‘생태위기가 곧 지구의 위기’라는 인식에 따른 생태운동과 기존의 고급문화를 거부하고 ‘모두에 의한 모두를 위한 문화’라는 슬로건의 문화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사회문화운동에 힘 입어 설립되었다고 할 수 있다. 더구나 당시 정권을 쟁취한 사민당은 시민들의 이런 요구에 발맞추어 문화정책에 “사회문화”라는 명칭을 부여하였고 방치된 건물들을 사회문화센터로 전환하는 일을 적극 지지했다. 이에 따라 시민단체에 의한 공공 사회문화센터 설립이 더욱 활기를 띠었다.

하지만 본고에서 고찰한 《프라이부르크 파브릭》은 신발을 만들던 노동자들이 직접 옛 파브릭을 매입하여 형성된 생활공동체이다. 즉 이들은 산업화가 심화되어가면서 단순한 기계노동자가 되는 것에 회의를 품고 노동을 하는 곳이 생활을 하는 곳이며 그 노동이 바로 자신의 문화 활동

41) 성인 문화예술프로그램의 입장료는 보통 20유로 이상이다. 앞에서 예를 든 《함부르크 파브릭》의 성인 문화예술프로그램 입장료는 평균 10유로 정도이다.

이 될 수 있는 공동체를 만들자는 데에 합의했던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이들은 노동활동이 오직 한 가지 일만을 하면서 제한된 시간 안에 더 많이 생산해내기 위해서 압박감을 느끼면서 하는 활동이 아니라 재료의 선택부터 제품을 완성하는 일까지 자유롭게 자신의 판단에 따라서 하는 활동이어야 하며, 이런 활동이 곧 자아를 실현하는 문화 활동이어야 한다고 여겼다. 때문에 순전히 “모두에 의한 모두를 위한 문화”라는 문화민주주의에 초점을 맞추었던 사회문화센터들과는 차이가 있지만 노동활동을 통해서 지역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일자리를 창출해냈다. 이때 특히 지역의 실업자와 외국인 노동자들을 배려했다. 이에 그치지 않고 〈포어테어하우스〉라는 문화센터를 설립하여 지역주민들에게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지역사회문제 해결을 위해서 토론회를 개최하고 장애인과 망명여성과 같은 사회적 약자를 돕는 활동을 하고 있다.

동시에 생태운동이 《프라이부르크 파브릭》의 설립 동기 중의 하나였듯이 생태사회 또는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해서 시민발기자들에 의해서 설립된 쇠나우 《에코 전력발전소》와 협력하며 에너지 자립공동체를 추구하고 있다. 또 《프라이부르크 파브릭》은 공동체의 에너지를 넘어서 프라이부르크 시의 에너지 자립을 위해서 쇠나우 《에코 전력발전소》와 《국민은행》과 협력하여 《에너지 연대》를 창설했다. 요컨대 《프라이부르크 파브릭》은 자유로운 노동과 문화와 생태가 함께 하는 자립적인 공동체이지만 고립의 섬이 아니라 지역사회와 연대하며 지속가능한 사회가 되는 하나의 모델을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 사지원, 『생태정신의 녹색사회: 독일』 이담출판사, 2011.
- _____, 「생태공동체 탄생에 의한 지역재생과 지역사회의 활성화 - 독일 베를린 《우파 파브릭 생태공동체》를 중심으로」, 『독일어문학』, 87집, 2019.
- Behrendt, Arne u. a, *Umnutzungs(t)räume. Soziokultur, Arbeit und Wohnen auf alten Gewerbeflächen - 29 Beispiele*, Hannover 1994.
- Bundesvereinigung Soziokultureller Zentren e. V., *Was braucht's? Soziokulturellen Zentren in Zahlen*, Berlin 2019.
- Borowsky, Peter, *Deutschland 1963-69*, Oldenbourg 1983.
- _____, "Das Ende der Ära Adenauer", in: *Informationen zur politischen Bildung, Zeiten des Wandels*, H. 258, 1998.
- Darendorf, Ralf, "Wenn der Arbeitsgesellschaft die Arbeit ausgeht", in: *Die Krise der Arbeitsgesellschaft? Verhandlungen des 21. Deutschen Soziologentages in Bamberg 1982*, Frankfurt a. Main/New York 1982, S. 25-37.
- Glaser, Hermann/Stahl, K. Heinz, *Die Wiedergewinnung des Ästhetischen. Perspektiven und Modelle einer neuen Soziokultur*. München 1974.
- Haeckel, Ernst, *Der Monismus als Band zwischen Religion und Wissenschaft*, Bonn 1902.
- Hermand, Jost, *Die Kultur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1965-85*, München 1988.
- Hoffmann, Hilmar, *Kultur für alle. Perspektiven und Modelle*. Frankfurt a. Main 1979.
- _____, *Kultur für morgen. Beitrag zur Lösung der Zukunftsprobleme*. Frankfurt a. Main 1986.

Hauff, Volker, *Unsere gemeinsame Zukunft. Der Brundtland-Bericht der Weltkommission für Umwelt und Entwicklung*, Greven 1987.

Isarel, Joachim, *Der Begriff der Entfremdung*, Reinbek bei Hamburg 1972.

Marcuse, Herbert, *Kultur und Gesellschaft 1*, Frankfurt am Main 1968.

Reid, J. H., *Heinrich Böll*, München 1991.

Winkelmann, Arne, *Kulturfabriken. Zeichenwandel der Fabrik in der freien Kulturarbeit*, Berlin 2006.

fabrik-freiburg, <https://www.fabrik-freiburg.de> (검색일 2020년 3월 27일).

FABRIK-Geschichte <https://www.fabrik-freiburg.de/ueber-uns/geschichte> (검색일 2020년 3월 27일).

FABRIK- kologie <https://www.fabrik-freiburg.de/ueber-uns/oekologie>. (검색일 2020년 4월 3일).

FABRIK-Video <https://www.fabrik-freiburg.de> (검색일 2020년 3월 27일).

Hamburg-FABRIK, <https://fabrik.de/programm> (검색일 2020년 2월 25일).

Schneider, Wolfgang, *Was ist und zu welchem Zweck betreibt man Soziokultur?* 2008. (<https://soziokultur-sachsen.de/phocadownload/userupload/was%20ist%20und%20zu%20welchem%20zweck%20betreibt%20man%20soziokultur%20-%20wolfgang%20schneider.pdf>) (검색일 2020년 3월 20일).

VORDERHAUS, <https://www.vorderhaus.de> (검색일 2020년 4월 2일).

〈ABSTRACT〉

《Freiburg FABRIK》, a Living Community with
Labor, Culture, Art and Ecology
—A Model for a Sustainable Society—

Sa, Jiwon

This paper considered the 《Freiburg FABRIK》, which was formed to integrate the labor system, in which human beings became only mechanical parts due to the segmentation of labor, and the place where labor was carried out, became a source of pollution that threatened their health, and the contradictions that they had to take extra time for hobbies and cultural and artistic activities due to the separation of labor and culture. The 《Freiburg FABRIK》 is a living community that transformed Factory, which used to be the workplace of workers, into a place of labor, residence, and restoration and preservation of the ecosystem.

However, this community does not only provide free labor and cultural activities for its members, but also provides cultural and artistic programs for the socially disadvantaged in the region to create jobs and help local residents engage in creative activities. It also contributes not only to the community itself but also to the city of Freiburg becoming an energy-independent city. In short, 《Freiburg FABRIK》 is a self-reliant community with free labor, culture and ecology, but it shows a model of becoming a sustainable society, not an island of isolation.

Key Words : Germany, Freiburg FABRIK, Labor, Culture, Ecology